

신천지와 기성교회의 ‘보상-교환’ 체계 비교 연구

- 개종과 재개종 간증문을 중심으로 -

이 정 은*

1. 서론
2. 합리적 선택이론과 개종
3. 신천지로의 개종에서 발견되는 비용과 보상
4. 기성교회로의 재개종에서 보이는 보상의 변이 양상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신천지로의 개종과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한 재개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필자는 석사논문에서 신천지 신자들의 개종 요인을 교리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바 있다.²⁾ 석사논문에서의 논의는 로저 핑키(Roger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1) 본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기성교회, 개종, 재개종이라는 단어의 선택 이유와 그 구체적 의미는 필자의 석사논문에서 나오는 각주 1번과 5번을 참고하길 바란다. 석사논문에서 정리한 의미를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면, ‘기성교회’는 기성(既成), 즉 ‘이미 이루어져 있던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종’은 인간의 내적 측면에 주목하여, 그곳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겠고, ‘재개종’은 ‘개종’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이정은, 「신천지 신자들의 개종요인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3], 6-7 참조.)

Finke)와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의 『미국 종교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The Churching of America 1776-2005: Winners and Losers in Our Religious Economy*)』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³⁾ 이들은 미국의 수많은 개신교 분파들이 계속적으로 생성 소멸하는 상황을 ‘종교적 경제(religious economies)’라는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필자 또한 간증문들을 토대로 신천지로 개종하는 신자들이 기성교회와 신천지의 종교 상품 중 왜 신천지의 상품을 택한 것인지, 어떤 점에서 그 종교적 상품에 매력을 느낀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논문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은 논문의 커다란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을 뿐, 간증문을 분석하는 중요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 중 스타크와 윌리엄 베인브리지(William S. Bainbridge)가 *A Theory of Religion* (1987)에

2) 이정은, 「신천지 신자들의 개종요인에 관한 연구」 참조.

본 논문은 석사 논문의 말미에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석사논문의 말미에서 필자는 신천지로 개종한 신자들이 반증 교리교육을 시키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를 통해 신천지에서 탈퇴하여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무엇이 신천지 신자들을 다시 기성교회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인지, 즉 신천지 신화가 충분히 신천지로 개종한 신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천지를 벗어나 자신들이 비판하던 기성교회, 즉 ‘말씀이 없다’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3) Roger Finke and Rodney Stark, *The Churching of America 1776-1990: Winners and Losers in our religious econom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2); 로저 핑크 & 로드니 스타크, 『미국 종교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 김태식 역 (서로사랑, 2009) 함께 참고. 스타크와 핑크는 미국의 다원주의적 종교 상황을 서술하면서, 종교 관련 규제의 철폐가 다양한 종교적 욕구의 수요에 맞춘 공급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신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적 선택들을 새로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종교 단체에서 신자들이 원하는 종교적 갈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경쟁력을 얻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종교 조직에서 이 ‘무언가’는 바로 ‘영혼을 위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학(theology)’이다. 필자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기성교회 교인들의 신천지 교회로의 개종을 ‘교리적 경쟁력’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다.

서 제시한 '보상-교환' 이론에 집중하여, 신종교와 기성교회의 보상-교환 체계를 비교하면서 신천지로의 개종과 더불어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한 재개종 현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본 논문의 논의는 스티븐 워너(R. Stephen Warner)가 말한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으로 불리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의 기독교계 신종교 중 하나인 신천지로의 개종과 기성교회로의 재개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세뇌(brainwashing)와 탈세뇌 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며,⁴⁾ 일탈(deviance)이나 박탈(deprivation)이론으로 설명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의 공통점은 구 패러다임(old paradigm)에 기초한 논의라는 것에 있다. 구 패러다임에는 종교에 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포함된다. 이 이론은 다원주의와 종교적 수요의 부정적 상관성을 기초로 종교 현상들을 분석해왔다.⁵⁾ 이러한 분석은 종교적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뇌이론이나 박탈 및 일탈 이론도 종교적 서비스의 수요자인 신자들의 관점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향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본 논문의 관점은 종교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에 집중하는 공급 측 이론인 새로운 패러다임에 속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종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수요가 아닌 공급에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개종을 설명할 때도, 공급자가 제시한 종교적 서비스의 어떤 측면이 수요자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녔던 것인지를 설명한다. 즉 해당 신자의 종교적 선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를 묻기보다 공급자의 어떤 요소들이 신자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었는지를 궁극해 한다는

4) 신종교 단체로의 개종 현상을 설명할 때, 세뇌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세뇌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신종교 단체를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시선 또한 신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유광석,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종교적 수요의 안정성 논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 (한국사회학회, 2012), 446.

것이다.⁶⁾ 본 논문 또한 공급측의 입장에 주목한다. 개종과 재개종 과정에서 각각의 신자들이 획득한 신천지와 기성교회의 종교적 상품 혹은 서비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보상적인 측면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개종’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스타크와 베인브리지의 보상-교환 이론과 야나코네(Laurence R. Iannaccone)의 인적자본 및 클럽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중 본 논문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상-교환’ 이론으로 신천지로의 개종과 기성교회로의 재개종 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사례 분석은 재개종 간증문 39개와⁷⁾ 개종 간증문 39개,⁸⁾ 그리고 기성교회로 재개종한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심층 면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개종 간증문과 재개종 간증문의 진술방식을 비교함으로써 교회(church)와 신종교(cult)의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교회와 신종교 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리보상’의 측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우선 3장에서는 신천지로의 개종 사건에 집중할 것이다. ‘개종’ 현상을 서술하는 간증문의 내용을 토대로 기성교회와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보상의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짐작해보도록 하겠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간증문이라는 자료는 수치화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를 짐작해보면서, 신천지에서 제공한 대리보상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다. 4장에서는 위 논의를 바탕으로 ‘재개종’ 사건에 주목할 것이다. 신천지에서 받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교리 상담’을 통해 다시 기성교회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신자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봄으로써, 그들의 재개종 이유를 ‘보상’에 주목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천지와 ‘교리 상담’ 기관

6) 유광석, 『종교 시장의 이해』(서울: 다산, 2014), 75.

7) <http://www.jesus114.net/>(개설일: 2009, 최종편집일: 2013.4.19., 접속일: 2012.11.01.) 본 논문에서는 석사논문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석사논문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활용하여 본 논문의 논거로 삼았다.

8) <http://cafe.daum.net/scjschool/>(회원수: 64,990명, 개설일: 2007.05.15, 접속일: 2012.11.01)

에서 신자들에게 제공한 대리보상의 성격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논의
 토록 하겠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의 논의는 신천지로의 개종과 '교리 상
 담' 기관을 통한 재개종 이유를 고찰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종교 단체
 에서 신자들에게 제공한 '보상'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으로 신천지로의 개종과 기성교회로의 재개
 종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본 논문은 개
 종과 관련된 한국의 신종교 현상에 합리적 선택이론을 미시적으로 적용
 하여 분석하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신종교 현상
 은 종교 현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연구할 때
 종교사회학적 이론은 중요한 분석 틀로 사용되어 왔다. 이중 합리적 선
 택이론은 1990년대 이후 북미에서 종교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으며, 기존 종교사회학의 오래된 편견들에 대해 도전적인 가설
 들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이 이론으로 한국의 신종교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신종교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론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이
 이론은 미국의 기독교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개신교
 관련 사례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본 논문은 개종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대상
 들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종교적 믿음과 행위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작동된다는 관점
 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⁹⁾ 즉 구 패러다임에 속하는 이론들처럼
 종교 현상을 장차 사라질 비합리적인 현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합
 리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종 또한 종교 공동
 체에 의한 세뇌나, 신자 개인의 박탈감과 같은 수동적인 차원으로 설명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종교 조직과 소비자인
 종교 신자들의 관계를 더욱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9) 유광석, 『종교시장의 이해』, 32.

의의를 지닐 수 있다.

2. 합리적 선택이론과 개종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신천지로의 개종과 기성교회로의 재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개종(conversion)’을 어떻게 설명해왔는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개종’은 스타크와 베인브리지의 ‘보상-교환’ 이론과 야나코네의 인적자본 모델, 그리고 클럽이론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각각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합리적 선택이론의 ‘합리적(rational)’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경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즉 종교적 행동도 일반적으로 비용과 이익이라는 타산에 기초하여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스타크와 핑키는 *Acts of Faith* 에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 “합리성 모델(rational model)”이 주요 사회과학적 전통의 근본적인 시각이 되었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종교 현상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말한다. 즉 학자들은 종교적 심성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스타크와 핑키는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각에 물음을 제기하면서, ‘합리성’을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종교는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종교적인 행위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종교적 행위들도 이익과 비용의 관계가 예민하게 계산된다는 것이다.¹⁰⁾ 즉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의 ‘합리성’은 인간은 보편적으로 비용에 비해 더 큰 보상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자기이익 증대의 욕구가 반영된 종교적 선택을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베인브리지는 위와 같은 합리적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보

10) Rodney Stark and Roger Finke. “Rationality and the Religious Mind” in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참고.

상과 교환' 이론을 전개한다. 그는 종교를 “초자연적 가정들에 근거를 둔 일반적 대리보상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면서 글을 시작한다.¹¹⁾ 즉 비용(cost)과 보상(reward), 대리보상(compensator)의 개념을 사용하여 종교의 본질을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심슨(John H. Simpson)은 이중 '대리보상'이라는 개념이 스타크와 베인브리지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서술한다.¹²⁾ '대리보상'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서 다루지 못한 무형적 혹은 종교적인 재화의 교환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환 이론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항상 교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을 피하면서 보상을 추구하는 합리적 성향이 교환 관계에 놓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타크와 베인브리지는 이 보상-교환 체계를 종교의 영역까지 확장시켜, '대리적 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종교적 재화의 교환관계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인간의 특징인 경제적 '합리성'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보상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보상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항상 얻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보상의 배분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종교 단체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해당하는 대리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베인브리지는 대리보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일차적 보상(primary compensation)과 이차적 보상(secondary compensation)을 구분하고 있다.¹³⁾ 베인브리지가 들

11) W. S. Bainbridge, "Sacred Algorithms: Exchange Theory of Religious Claims," In *Defining Religion: Investigat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Sacred and Secular*, A.L.Greil and D.G.Bromley (New York: JAI, 2003), 21.

12) John H. Simpson, "The Stark-Bainbridge Theor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29(3) (1990): 368.

고 있는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병자를 위해 하는 기도가 병자에게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준다는 점에서 일차적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들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에게 병을 낮게 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아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이차적 보상에 해당된다. 베인브리지는 성스러운 알고리즘에서 일차적 보상과 이차적 보상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지만, 이차적 보상이 종교 조직을 유지하고 세우는 데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리하자면 대리보상이라는 개념은 보상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돈이나 지위처럼 눈에 보이는 실제적 보상(real reward)뿐만 아니라,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믿음과 같은 비물질적인 이익도 보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상-교환 이론에서 ‘개종’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지 않는다. 작게나마 ‘개종’과 연결될 수 있는 설명은 대리적 보상이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체물로서 종교적 이동과 분열의 기초가 된다는 것에 있다. 심슨은 베인브리지와 스타크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종파(sect)나 신종교(cult)는 교회(church)나 교단(denomination)에 비해 사회와 높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이유가 보상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조직 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상이 불평등하게 나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언제나 보상을 얻고자 애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는 대리보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때 대리보상은 실제적 보상의 대체물로 작용하게 되는데, 교회 경제(churchly economies) 안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신종교가 제공하는 대리보상은 교회적 대리보상과 차별화된 새로운 성격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신종교 보상 체계의 특징은 개종에

13) W. S. Bainbridge, “Sacred Algorithms: Exchange Theory of Religious Claims,” 29-31.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보상-교환 관계에서 원하는 보상을 충족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이와는 차별화되는 보상을 제공하는 곳으로 종교적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교환’ 이론과 개종의 문제를 연결하는 논의는 1990년대에 이르러 경제학자 야나코네에 의해 진지하게 연구된다. 야나코네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이론적 가설들을 다양한 경제개념으로 체계화하면서 종교적 개종, 무임승차, 그리고 종교적 자본의 문제를 비용-편익에 기초한 합리적 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¹⁵⁾ 개종과 관련한 설명이 제시되는 야나코네의 인적자본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아지지(C. Azzi)와 에렌버그(R. G. Ehrenberg)의 가정생산 모델을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¹⁶⁾ 아지지와 에렌버그는 사람들이 일생동안 세속적 소비와 종교적 소비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즉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종교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¹⁷⁾ 야나코네는 이 모델을 발전시켜 종교적 인적자본에 대해 논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본의 총량을 가정생산 모델에 첨가한 것이다. 즉 종교적 만족도와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에는 시간과 돈뿐 아니라 과거의 종교적 경험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 것인데, 이를 '인적자본'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따라서 종교적 인적자본이 클수록 개종이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기독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은 기독교적 가치나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그 공동체 속에서 공유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적

14) John H. Simpson, "The Stark-Bainbridge Theory of Religion," 369.

15) 유광석, 『종교시장의 이해』, 14.

16) C. Azzi & R. G. Ehrenberg, "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Church Attend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1) (1975): 27-59.

17) Laurence R. Iannaccone,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Relig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September) (1998): 1479-1481.

18) Laurence R. Iannaccone,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Religion", 1481-1482.

자본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개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개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적자본의 이와 같은 특징은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 하더라도 종교적 성향이 비슷한 교단이나 종파로의 개종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가정생산 모델과 인적자본에 대한 논의를 종교조직에 확대하여 적용하면 클럽이론(club theory)이 된다. 클럽이론은 종교적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종'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무임승차에 대한 논의는 종교적 서비스가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집단재(collective goods)라는 것과 연관된다. 집단재는 상품에 대한 소비를 개개인에 따라 분리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재화에서는 항상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집단재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재를 생산하는 공급측에서는 이런 무임승차의 부담이 다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때문에 종교적 통제가 심한 보수적인 단체에서 무임승차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은 개종이나 변절, 갑작스러운 이탈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반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의 교단들에는 무임승차자들이 포함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지닌 사람들은 해당 교단을 나오게 될 것이다.¹⁹⁾ 공공재와 무임승차의 이와 같은 관계는 종교적 참여도와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는 희생 혹은 규율의 엄격성이 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설명해준다. 즉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보수적인 단체들에 왜 여전히 신도들이 모이며, 열성적인 활동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것이다.²⁰⁾ 보수적인 단체들에서 요구하는 높은 비용은 무임승차자들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돌아갈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보상-교환' 이론

19) 유광석, 『종교시장의 이해』, 57-60.

20) Laurence R.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Reducing Free-riding in Cults, Communes, and Other Collec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1992), 283-288.

에 나오는 비용과 보상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지금까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개종’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해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정리해보았다. ‘보상-교환’ 이론과 인적자본, 클럽이론에서 개종과 관련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져왔는데, 이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경제적 합리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야나코네는 스타크와 베인브리지에 의해 주장된 ‘보상-교환’ 이론을 심화하여, 인적자본과 클럽이론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논의들 중 스타크와 베인브리지의 ‘보상-교환’ 이론에 주로 집중하여 신천지로의 개종과 기성교회로의 재개종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야나코네의 인적자본과 클럽 이론에서도 ‘개종’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인적자본에서는 사람들이 비슷한 성격의 종교 단체로 개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클럽이론에서의 ‘개종’은 자연스러운 종교적 이동 (religious switching)으로서의 개종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강한데, 본 논문에서 말하는 ‘개종’ 현상에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라는 곳을 통해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로 다시 재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된다. 이 점에서 그 설명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가장 기본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비용과 보상의 문제를 다루는 ‘보상-교환’ 이론에 주로 집중하여, 신천지로의 개종 및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한 기성교회로의 재개종 현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3. 신천지로의 개종에서 발견되는 비용과 보상

이 장에서는 ‘보상-교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적인 논의의 틀을 기반으로 신천지로 개종하는 과정을 서술한 간증문들의 진술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성교회에 비해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사람들이 신천지로의 개종을 선택한 이유는 그 보상이 지닌 가치에 있음을 논할 것이다. 개종 간증문과 재개종 간증문에는 기성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신천지로 개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신천지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종 간증문에서는 간단하게, 재개종 간증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간증문에 나오는 신자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신천지로 가기 전 기성교회에서의 삶이 신천지로 개종한 이후의 삶에 비해 투자한 비용과 이익이 작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비용을 위해 신천지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교환’ 이론에 따르면 신종교는 기성교회에 비해 보상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적 보상을 현격하게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비용과 편익이 높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신천지에서의 삶은 현격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CBS에서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신천지에서의 삶은 가정이나 직장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이 우선된다. 한 재개종 간증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지인의 소개로 3년 동안 외국파견업무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예배 출석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언젠가는 제가 있게 될 나라에도 신천지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 기초를 세워보자 생각했고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천지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회의 입장은 제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장 2,3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돈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들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격이라며 저의 계획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저에게 이대로 간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못 가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습니다. … **제가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그들은 출국 3일전까지 새벽이 되도록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설득하고 꾸짖고 갖은 거짓말을 다 동원해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그들의 거짓말과 연기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저는 결국 출국을 취소했고 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 그 사건 이후 가정에서와는 달리 신천지 교회에서 저는 존재감이라는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저를 춤추게 했고 다시 일할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추수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재개종2)²¹⁾

간증자는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 외국 파견업무의 기회가 생겨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신천지 교회의 반대로 결국 그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는 신천지 신자들에게는 신천지라는 공동체를 빨리 완성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신천지에서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간증문들에서는 신천지 신자가 된 이후, 그 활동을 위해 기존의 관계들과 직장 및 학교생활을 포기하며,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과 돈을 바치는 등 신천지 삶에 올인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²²⁾ 이는 신천지 신자가 된다는 것,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요구하는 비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간증자들은 신천지 신자들에게 가정이나 직장의 어떤 일도 신천지의 '역사'라고 불리는 것을 완성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택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간증자 스스로의 기꺼운 선택이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신천지로 개종하기 전 기성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종 간증문과 재개종 간증문의 간증자들은 모두 신천지에 가기 전 기성교회에서의 신앙 경험이 있는 신자들이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열심의 정도는 매우 다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천지로 가기 전 기성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고백한다. 성실히

21) 간증문을 직접 인용할 때는 간증문의 말미에 (개종2), (재개종34)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용 여부를 표시하였다. 간증문은 '개종'과 '재개종'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간증문에 1부터 39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였다.

22) 신천지의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내용은 재개종 간증문 뿐 아니라 개종 간증문의 내용에서도 계속적으로 발견된다. 개종 간증문의 간증자들은 자신들이 신천지로 개종했을 때 신천지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에 엄청난 감격을 표한다. 그들은 간증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운 신천지 인”, “천국 백성”, “선택받은 십사만 사천 명의 하나”, “하늘의 제사장” 등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신천지가 바로 “이긴 자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육천년 만에 여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시대의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범위에는 거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열심을 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부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정도의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까지가 포함된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좋은’ 교회를 찾아 이 곳 저곳을 전전하던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교회를 잠시 쉬고 있었던 사람들 등이 존재한다. 그 열심의 정도가 어떠했던 간증자들이 기성교회에 출석할 당시 기성교회에 지불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위해 가정과 직장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 예배나 교회 모임에도 특별한 구속력이 없었고, 교회의 출석여부도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비용 또한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신자들이 신천지로의 개종을 선택한 것인지, 왜 신도들은 비용을 적게 지불해도 되는 교회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종교로 개종을 선택한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개종’이라는 사건은 비용과 보상이 불균형하다고 여겨질 때, 즉 투자한 비용에 비해 보상이 작다고 생각될 때 발생한다. 신천지로 개종하기 전 기성교회에서의 삶을 서술하고 있는 개종 간증문과 재개종 간증문의 내용은 개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개종 간증문에서는 주로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와 같은 외부적 결핍에 집중하며, 재개종 간증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의 문제’ 등 개인적인 결핍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²³⁾ 그런데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던 결국 신천지로의 개종을 선택했다는 것은 신자들이 기

23) 간증문을 분석한 다음의 표의 내용을 통해 개종 간증문과 재개종 간증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분 류 기 준		개종 간증문(39개)		재개종 간증문(39개)	
		개 수(개)	비 율(%)	개 수(개)	비 율(%)
결핍 요소 연급	외부적(교회) 결핍	36	92%	14	35%
	개인 내적 결핍	1	2%	18	46%
특별한 결핍요소 연급 없음		2	5%	7	18%

<표1> 개종과 재개종 간증문 분석 자료

성교회에서 충분한 종교적 보상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서술한 이들은 그 열심을 만회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으며, 성실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기성교회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라는 식의 막연한 구원과 축복의 보장이 불만이었다고 고백한다.²⁴⁾ 그런데 재개종 간증문에서는 신천지로 가기 전 기성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불만을 느끼지 않았고 만족했다고 주장한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천지 전도사와의 만남을 통해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천지 전도사와의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 신천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와 그 공동체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한다.²⁵⁾ 즉 신도들이 신천

24) 재개종 간증문의 어떤 간증자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회에서의 설교가 너무나 가치 없게 느껴졌다. 그러나 신천지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고백은 무임승차를 용인하는 기성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보수적인 신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5) 지면상 재개종 간증문에 나오는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신천지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은 대학교에 올라오게 된 후 2007년도에 대학교 캠퍼스에 서입니다. 처음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인줄은 몰랐습니다. …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나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교사가 예수님이 구름타고 오시는데 진짜 구름일까요? 하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가 보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더니 정말 그 주변의 분위기를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저도 웬지 아 내가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 그래서 그렇게 인제 공부를 호기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고 정말 천국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을 돌아다보면 전혀 좁지도 않았고 편안하기만 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천지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재개종15) 이 간증문의 간증자는 신천지 전도사를 만나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당시 신앙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전까지

지 전도사를 통해 기성교회로부터 받은 보상의 불충분성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느낀 신자들은 신천지의 무엇에서 부족한 보상을 충족 받게 되었던 것일까. 즉 우리는 수요 측인 신자들의 입장과 함께 공급 측인 기성교회와 신천지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신자들을 매혹한 신천지의 ‘상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석사논문에서 이 상품이 바로 신천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신자들은 신천지로 개종하기 전 기성교회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천지의 “말씀”이 좋아서 신천지로의 개종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신천지의 말씀은 ‘대리보상’에 속한다. 대리보상은 실제적 보상(real reward)을 대체하는 것으로, 구원, 영생과 같은 종교적 재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천지의 ‘말씀’은 신도들에게 신천지 식의 구원을 보장해주며, 교회 경제 내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무형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대리보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독교 성서를 재해석하여 신천지 식으로 새롭게 만든 교리 및 신화체계로, 기성교회에서는 용납되거나 통용되기 힘든 성격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간증자들 또한 신천지의 ‘말씀’을 기존의 기성교회에서 제공한 구원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은 신천지의 ‘말씀’이 교회적 보상과는 차별화되는 신종교의 대리보상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신천지에서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만큼 높은 보상을 제공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른다면 보상이 비용을 상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개종을 선택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추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천지의 삶은 그 신도들에게 비용을 많이 요구한다. 대신 그렇게 열심히 신천지 활동을 하고 전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확실한 구원, 즉 보상이 제공된다.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 제공되며, 이에 따라

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대해 특별한 불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천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던 것이 아닐까 반문하게 되었다는 서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신이 죽지 않는 영생이 보장된다.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이 '말씀'이라는 상품은 기성교회의 '말씀'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가격을 자랑한다. 신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커녕 모호함만 남기는 것으로 여겨졌던 기성교회의 설교 메시지에 비해 신천지의 말씀은 확실하고도 완벽한 구원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개종 간증문을 작성한 한 간증자는 신천지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부인할 수도, 흠을 잡을 수도 없는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와 보니 참 하나님이 계시는 신천지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짜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짜예수님, 그리고 진짜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개종11)” 이 간증문은 한 사례일 뿐이며, 이 외에도 개종과 재개종 간증문에서는 신천지에서 제공한 “말씀”을 표현할 때 “완벽”, “진짜”, “참”, “의문이 남지 않는” 등의 용어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대리보상'의 가치는 신천지로 개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진술 방식의 특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간증자들은 신천지의 말씀이 지닌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맞다, 틀리다”, “안다, 모른다”, “무지와 지” 등의 대립구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판단적이고 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만약 인터넷의 비방이 맞고 내가 배운 말씀이 틀리다면 여기서 집을 떠나.' 다짐하고 컴퓨터 옆에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인터넷 비방글에 나온 주장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배운 말씀과 실상이 맞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개종31)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정말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개종39)

혹시 의심되더라도 끝까지 공부해보고 최종결정을 하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무지했던 저는 끝까지 들어봤고 그 결과 틀린 말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재개종21)

하지만 진리는 변할 수 없다고, 하나라도 틀리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쳐주던 신천지에서, 세례요한이 배도자라고 한 것도, 그렇게 성경적이라 말하던 12지파의 역사도 특히나 계시록의 일곱 머리 열뿐, 나라와 제사장과

흰무리 아주 전부 틀리더군요.(재개종30)

이러한 표현 방식은 신천지로의 개종을 서술하는 대부분의 간증문에서 한 번 이상 등장한다.²⁶⁾ 이와 같은 용어는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사용된다. 재개종30의 간증자의 말처럼 옳고 그름의 영역에는 애매함이 없다. 옳으면 100% 옳은 것이며, 틀리면 100% 틀린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로 개종하기 전 기성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았다. 기성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신천지에 비해 거의 구속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 만큼이나 낮은 비용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100%의 확실함이 주어지지 않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식의 누구나 무임승차 할 수 있는 막연한 구원이 제공된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애매함을 지니고 있던 신자들은 비용과 보상의 원칙에 따라 신천지가 제공하는 ‘옳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소유하기만 하면 주어지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4. 기성교회로의 재개종에서 보이는 보상의 변이 양상

지금까지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개종’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를 다룬 후, 개종과 재개종 간증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신천지로의 개종 현상을 보상과 편익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리 상담’을 통해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로 재개종한 신자들의 간증에 주목할 것이다. 이 신자들의 재개종 이유가 무엇인지, 즉 신천지가 제공한 대리보상을

26) 예를 들어 “신천지의 말씀이 맞았기 때문에 신천지로 개종했다”라는 서술은 신천지로의 개종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35회나 등장하고 있다. 반면 재개종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교리 상담 기관의 구원론이 맞았기 때문에 기성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서술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즉 “맞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횟수의 차이를 통해서도 신천지 측에서 제공하는 대리보상인 “말씀”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기하게 된 이유를 고찰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보상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신천지 신자들이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보상, 특히 대리보상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천지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제공된 대리보상은 바로 그들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신천지 신자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고 옳은 말씀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며, 소유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구원자를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으며,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직접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 믿음은 옳고 그름의 영역, 100% 또는 0%의 영역이다. 하지만 신천지로 개종하기 전 기성교회에서는 이러한 보상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봉사하면 천국간다”라는 식의 메시지는 확실한 보상이 되어주지 못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믿음’과 ‘봉사’라는 것의 척도는 경험적이고 심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 보상의 애매함과 불충분함을 느끼는 가운데 등장한 신천지 전도자의 “말씀”은 ‘소유’와 ‘옳고 그름’의 영역에 속하는 확실함을 제공해주었고, 신천지의 신도는 삶의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완벽한 말씀과 천국을 제공한다고 믿은 신천지로의 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신자들이 신천지에서 제공한 그렇게 엄청난 ‘보상’을 어떻게 포기하고 다시 기성교회로 재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교리 상담’ 기관에서는 신천지에서 제공한 완벽한 ‘보상’을 대체할 다른 성격의 ‘보상’을 제공해주었던 것일까. 이 질문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어떻게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보상’을 포기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재개종의 과정에서 ‘교리 상담’ 기관이 제공한 ‘보상’은 어떤

것이었는데에 대한 문제라 하겠다. 첫 번째 문제는 신천지가 제공한 보상의 성격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보상-교환’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비해 비용과 보상이 높았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제공한 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리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리보상은 바로 신천지의 완벽하다고 믿어지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의 영역에 속했다. 즉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대리보상은 ‘판단적이고 지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녔다. 실제로 신천지로 개종하는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안다, 모른다, 맞다, 틀리다, 무지와 지”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신천지로 개종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한 재개종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다 처음으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강의는 진용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보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혜사가 틀려버리면 신천지 모든 교회가 틀려버리는 셈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만회가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지위가 박탈당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어려웠습니다.(재개종4)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신천지가 틀리면 어떡하지, 정말 내가 (재)개종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상담 받기 전 신천지 사람들이 행동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천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상담에 대한 굳은 마음도 조금씩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 그곳이 틀렸다 라는 것을 보니 정말 틀린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신천지가 맞아 보이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재개종15)

간증자들은 신천지의 교리적 설명이 “틀렸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신천지에서 나올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신천지의 교리가 틀려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서술은 거의 모든 재개종 간증문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진술 방식은 신천지가 제공한 보상이라는 것이 “틀릴 수 있는” 보상, 즉 깨어질 수 있는 유형적인 성격을

지닌 보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만면 ‘교리 상담’ 기관에서 제공한 ‘보상’은 신천지가 제공하는 것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재개종 과정에서 ‘교리 상담’ 기관에서 제공한 ‘보상’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신천지로 개종한 신자들의 개종을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 했듯, ‘교리 상담’을 통해 기성교회로 다시 편입된 신자들의 재개종 사건 또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들은 왜 도대체 다시 기성교회로 편입된 것일까. 무엇이 그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일까.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단순히 신천지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즉 신천지에서 제공한 대리보상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재개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종’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대리보상”의 수용여부이기 때문이다.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해 제공된 대체 “대리보상”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다.²⁷⁾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로 다시 재개종한 이들은 모두 ‘교리 상담’

27) 아래의 간증문의 내용을 통해 신천지의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신자들이 재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것과 재개종하게 되는 사건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재개종 간증문 중 기성교회의 교리상담 기관에서 두 번의 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간증자는 첫 번째 상담을 받은 후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알게 되었지만, 다시 신천지로 되돌아갔다가 두 번째 상담을 받게 된 후 기성교회로 재개종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사례는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것과 재개종이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상담 받는 첫날**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어 있던 저는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고 스스로 되뇌이며 굳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고 넷째 날엔 높게 벽을 치고 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마음의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세례요한은 배도자다라고 알고 있던 그 교리가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세례요한을 배도자라 할 수 없는 성경적 참 근거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 하지만 구원의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구원에 대해 깊이 목상하고 고민하지 않았고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만을 긴급해하고 지식만을 구했습니다. 신천지가 틀렸다고 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에서 신천지 강사와 만나게 되었고 눈깜짝할 사이에 가출하였고 다시 신천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 첫째 날, 한 번의 상담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장영주 전도사**

기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구원의 확신”이 신천지의 “말씀”을 대체할 만한 보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의 “말씀”도 또 다른 의미로 신천지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서 신천지의 대리보상과 기성교회의 대리보상의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천지의 “말씀”은 지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보상이었다면, ‘교리 상담’ 기관에서 제공했다고 서술된 “구원의 확신”은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보상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리보상의 성격 차이는 개종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과 재

님께서 이단 계보를 하실 줄 알았는데, 진용식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상담을 시작하시며 건넌 첫 한 마디는 “OO이, 반증해봐”였습니다. 6개월의 신학원 과정을 다시 거치며 쌓아놓았던 지식들은 2년이라는 세월에 흐릿해져 있었고 간단한 대꾸조차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3년전 상담받을 때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나면 먼저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보면 이해가 안되지만 망치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급작스레 깨달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천지 교리라는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천지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문제는 있었고, 구원론 교육은 매일 듣지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마음은 항상 물음표였습니다. 답답한 저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매달렸습니다. 2009년 3월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론을 듣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속하셨고 정죄하지 않는구나 라는게 마음에 믿어졌습니다.”(재개종9)

간증자는 첫 번째 상담에서 신천지 교리의 모순과 오류를 발견하고 그 교리에 대한 믿음이 깨졌음에도 신천지 강사를 만난 후 다시 신천지로 돌아갔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그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당시 자신이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를 원했을 뿐이었고,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상담을 받게 되었을 때는 구원의 문제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서 믿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적으로 수용되는 신천지 말씀과 차별화되는 재개종 과정을 확인시켜준다. 즉 기성교회의 구원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종결되는 재개종은 지식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인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개종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신천지로의 개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 단어는 “구원”보다는 “말씀”이라는 단어이다. 간증자들은 신천지 “말씀”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은 그 “말씀”에 눈을 떠서 신천지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개종 간증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원받을 통로인 신천지”, “구원의 말씀이 알려지고”,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신천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 “이 시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신 생명의 은인(총회장)”, “우리의 이 함성이 비진리에 취해있는 저 세상의 정신을 깨우는 구원의 나팔소리”,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14만 4천만 구원이 아니라 흰무리도 구원받는 것”,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 “신천지로 와야 구원이 있다”, “구원의 처소로 예비하신 신천지”

위의 서술들에서 신천지에서는 “구원”이 소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라는 단체로 오는 것이 구원이며, 신천지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14만 4천명과 흰무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며, 그 창시자에게 속하는 것이 구원이다. 즉 이와 같은 서술에서 구원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속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한 재개종 상황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서술어들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앞서 개종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재개종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한다. 모든 사례를 나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간증문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야곱의 구원이 마치 저의 구원처럼 느껴졌고 결국 저도 그리스도께서 주는 구원의 평안에 참여”, “구원의 확신으로 제 삶을 억누르던 불안감과 공허

함은 사라졌습니다.” “구원받고 의인된 것이 믿어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 회개, 예수님, 성화 등이 이전보다는 더욱 깊이 있고 풍성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기적(구원)을 체험했어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의 모든 자만과 어리석음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 그 기쁨의 감격”, “나를 구원하시고”,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원론으로 확증과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재개종 간증문에서 “구원”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단어, 그리고 경험적인 단어와 자주 연결된다. 위 내용에 따르면 구원은 느껴지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 믿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체험하는 것, 기쁨의 감격을 주는 것, 확신하게 되는 것 등이다.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개종 간증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재개종의 사건을 서술하는 내용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은 간증자들이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해 얻은 “구원”이라는 대리보상은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볼 때에도 신천지로 개종하는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안다, 모른다”, “틀리다, 맞다” 등의 판단적이고 지적인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면, 재개종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에서는 정서적인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증자들은 재개종 상황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믿어지다”, “느껴지다”, “구원과 평안에 참여하다”, “전에는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던 단어(그리스도, 대속, 부활, 사랑, 십자가, 구원, 회개, 성화 등)들이 너무나 소중한 감동으로 느껴지다”, “깊이 있고 풍성하게 다가오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다”, “말씀이 와닿다”, “하나님이 나의 지식이나 행동이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 “기쁨이 감격이 찾아오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다”, “깊이 깨달아지다”, “정말 죄인이구나 느끼게 되다”, “은혜를 알게 되다”,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고 싶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다”, “임재를 깊이 느끼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다”, “절실히 깨

닫다”,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다”,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다”,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말씀들이 가슴으로 울리다”, “열리지 못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회복시키다”,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을 이해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느껴져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지식과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정서적 경험과 체험의 언어들이다. 이를 통해서도 간증자들이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해 얻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대리보상은 지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교리 상담’으로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로 재개종한 신자들의 재개종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높은 비용은 그만큼의 높은 보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천지의 삶에서 지불했던 높은 비용은 그만큼이나 완벽하고도 확실하게 여겨지는 보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받았던 보상을 포기한 신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어떻게 그 보상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천지에서 제공한 대리보상의 특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천지에서 제공한 대리보상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차원에 존재하는 지적인 차원의 대리보상이었다. 틀림 혹은 그름이 확인되는 순간 가치가 사라지는 특징을 지닌 보상이었다. 간증자들은 ‘교리 상담’을 통해 그 ‘틀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재개종을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반면 재개종의 과정에서 받아들인 기성교회의 보상은 ‘구원의 확신’이었는데, 이 확신은 정서적인 차원이 강조되는 확신이자 보상이었다. 이를 통해 재개종의 사건은 신천지에서 제공한 대리보상의 무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리보상”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천지와 교리 상담 기관에서 제공한 대리보상은 일종의 “구원의 확신”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간증문의 진술을 토대로 할 때 그 확신의 성격은 달랐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신천지의 대리보상이 지적이고 ‘옳고 그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던다면, ‘교리 상담’ 기관의 그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 속하는 확신이었다. 간증자들은 이 확신을 신천지로 개종하기 전 기성교회의 신자였을 당시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5. 결론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신천지로의 개종과 기성교회로의 재개종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개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스타크와 베인브리지의 ‘보상-교환’ 이론과 이 이론을 발전시킨 야나코네의 인적자본 및 클럽이론에서 ‘개종’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 이론들 중 야나코네의 인적자본과 클럽이론은 필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신천지로의 개종과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한 기성교회로의 재개종 현상을 분석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인적자본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래 몸담고 있던 종교 단체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로 개종하기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클럽이론은 무임승차의 욕구에 따른 자연스러운 탈퇴 및 개종 현상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타크와 베인브리지의 ‘보상-교환’ 이론과 ‘대리보상’의 개념을 분석 도구로 택하게 된 것이다.

신종교와 기성교회 사이의 개종과 재개종 현상을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종과 재개종 사건의 중심에 서있던 신자들의 증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택의 주체는 어찌됐든 신자들이기 때문이며, 그 신자들의 증언을 통해 종교재의 공급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천지로 개종한 신자들이 쓴 간증문과 신천지에서 기성교회로 재개종한 신자들이 쓴 간증문의 진술 내용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신자들이 신천지로 개종한 이유와 기성교회로 재개종한 이유를 ‘비용’과 ‘보

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신종교로서의 신천지 단체에서 요구하는 비용과 보상이 기성교회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높음에도 사람들이 개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보상의 가치에 있었다. 기성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기성교회에서 받는 보상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신천지 전도자들에 의해 확실히 일깨워졌다. 그런데 신천지에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던 신자들이 어떤 이유로 기성교회로 다시 재개종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보상의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보상은 대리보상으로서 무형적 성격의 보상이지만, '웁고 그림'의 영역에 속하는, 얼마든지 깨어지고 부정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보상이었다. 반면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해 재개종한 신자들이 그곳에서 받은 보상은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보상이었다. 이를 통해 신천지나 '교리 상담' 기관이나 모두 '구원'과 관련되는 영적이고 무형적인 차원의 보상을 지불하였지만, 그 보상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그 주장을 세밀한 통계 자료로 뒷받침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교리 상담' 기관을 통해 재개종한 이들이 이후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재개종한 신자들의 삶에 대한 논의는 따로 독립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개종'과 '재개종'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해당 사건을 합리적 선택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즉 '세뇌' 이론으로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논의는 한계를 지닌다. '교리 상담'을 통한 재개종은 자연스러운 탈퇴 과정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신천지 탈퇴자 진술의 대부분에서 신천지로 개종할 때에도 물리적인 차단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차단 속에서 개종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천지에서 탈퇴한 다양한 경우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개종과 재개종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신천지, 기성교회, 보상-교환 체계, 간증문, 개종, 재개종, 합리적 선택, 인지적, 정서적, 구원의 확신

원고접수일: 2015년 11월 5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3일

참고문헌

1) 1차 자료

신천지 개종 간증문 39개.

신천지 탈퇴 간증문 39개.

최근 신천지 탈퇴자 심층상담 녹취자료.

2) 논문

유광석.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종교적 수요의 안정성 논쟁」.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 (한국사회학회, 2012): 445-455.

이정은. 「신천지 신자들의 개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3.

Azzi C. and R. G. Ehrenberg, "Household Allocation of Time and Church Attend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1) (1975): 27-59.

Iannaccone, Laurence R.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Relig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September) (1998): 1465-1496.

_____. "Sacrifice and Stigma: Reducing Free-riding in Cults, Communes, and Other Collec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1992): 271-291.

Simpson, John H. "The Stark-Bainbridge Theor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3) (1990): 367-371.

Warner, R. S. "Approaching Religious Diversity: Barriers, Byways, and Beginnings." *Sociology of Religion* 59(3) (1998): 193-215.

3) 단행본

김중서, 『종교사회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5.

유광석, 『종교 시장의 이해』. 서울: 다산, 2014.

Bainbridge, W. S. *Defining Religion: Investigat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Sacred and Secular*. A.L.Greil and D.G.Bromley. New York: JAI, 2003.

Finke, Roger and Rodney Stark. *The Churching of America 1776-1990: Winners and Losers in our religious econom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2.

_____.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Cost-Reward' System of Shin-Cheon-Ji and Protestantism Church

Lee, Jungeu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phenomenon of conversion (to the Shin-Cheon-Ji) and re-conversion (from SCJ to the established Protestant Church) through the rational choice theory. In Master's degree thesis I analyzed why believers of the established Protestant Churches converted to SCJ based on its doctrinal contents. In that work I paid attention mainly to the analysis of attractive parts of SCJ's religious goods (doctrine and myth) from the point of religious economy. However, I could not discuss the rational choice theory in detail. Therefore in this paper I focused on 'cost-reward theory' of R. Stark and W. S. Bainbridge and comparison between SCJ's and the established Protestant Churches' cost-reward systems. In my thesis I analyzed testimonies of conversion provided by SCJ, as well as testimonies of re-conversion provided by Christian Heresy Consultation Center. The argument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theory belonging to New Paradigm mentioned by R. Stephen Warner. I analyzed the confessions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to find the reasons for devotees'

conversion and re-conversion. As the result, the following features were verified.

Firstly, I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conversion from the established Protestant Church to SCJ and found out that the costs and benefits demanded by the latter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former. In spite of the high cost, Protestant believers converted to SCJ, because they thought they could get a great benefit, such as a guarantee of religious salvation.

But why would a devotee of SCJ re-convert and return to the Protestant Church? In order to find it out I paid attention to the re-conversion cases attributed to the assistance of Christian Heresy Consultation Center. The reason could be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s supplied by SCJ. The rewards of SCJ are characterized by cognitive category, such as right and wrong, or 100% and 0%. However, people, who got a heresy counseling and re-converted to Protestantism, confessed that they were both emotionally and empirically convinced of salvation.

In conclusion we could say that both in case of conversion and re-conversion the reward which believers could gain was so-called "assurance of salvation". But it was found out that the features of the benefit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le one was emotional, the other was cognitive.

Key words: Shin-Cheon-Ji, established protestant church, cost-reward(benefit) system, confession, conversion, re-conversion, rational choice, cognitive, emotional, assurance of salvation